

자료제공: 2024. 3. 28.(목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

버스정책과장

강 인 철

2133-2260

버스정책팀장

이 봉 희

2133-2262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2쪽

담 당 자

방 상 아

2133-2268

서울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... 비상수송대책 즉시 시행 "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"

- 비상수송대책본부 선제적 구성 완료...28일 첫차부터 즉시 대체 교통수단 투입
- 지하철 출퇴근 및 막차 시간대 각 1시간 연장 및 202회 증회 실시
- 파업 미침여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활용, 지하철 연계 무료 셔틀버스 운행
- 조속한 노사 합의 도출로 대중교통 운행 정상화에 총력, "시민 불편 최소화"

- 27일(수)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28일(목) 04시 결렬됨에 따라, 서울시는 28일(목) 0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, 27일(수)에 이미 구성을 완료한 시(市), 구(區)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교통대책을 마련하였고 28일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.

-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익일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. 또한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.
- 지하철 혼잡시간은 (오전)07:00~10:00, (오후)18:00~21:00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,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02: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.
-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, 480대가 빠르게 투입되어 1일 총 4,959회 운행된다.
 - ※ 보광운수, 정평운수,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
- 또한 다산콜재단, 교통정보센터 토피스, 서울시 매체,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.
-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”이라며 “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”고 밝혔다.